

# 취약한 의료 공공성 확보 시급

작년 국내 공공 의료기관 5.2%... 2015년대비 0.5% ↓  
OECD 평균 공공 의료기관 비율 57%와 큰 차이  
박희승 의원 "공공보건의대 설립 통한 역량 확충을"



병상 수도 같은 기간 10.5%에서 2023년 9.5%로 감소했다. 울산이 1%로 가장 낮았고 인천(4.3%), 부산(5.4%), 광주·경기(7.0%) 순이었다. 반면 제주(30.3%), 세종(23.7%) 강원(21.4%) 순으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취약한 의료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5.2%로 줄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매우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은 95개의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단 1개로 공공 의료기관 비율이 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 부산(2.2%), 광주(2.9%), 경기(3.4%), 인천(3.7%), 대구(3.9%)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101개 중 18개가 공공 의료기관으로 그 비율이 17.8%로 가장 높았고, 제주(17.2%), 경북(10.7%) 순이었다.

또한, 공공 의료기관의 병상 수도 우리나라는 9.5%에 불과했지만, OECD 평균은 71.6%에 달했다. 영국(100%), 캐나다(99.4%), 프랑스(61.1%), 독일(39.8%) 순이었고, 일본(27.8%), 미국(21.1%) 순이었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화랑훈련 사후검토 회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간의 화랑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7일 오전 사후검토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김민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 김광석 35사단장, 최종문 전북경찰청장, 이오숙 소방본부장 등 주요 통합방위작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 완주-전주 통합 '밀거름'

민주 이성윤 의원,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합지자체 안정적 재정 지원... 통합의 '완전복원' 촉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시) 국회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완전복원'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완전복원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 201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해 신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

##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 치유농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남원시의회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대표의원 김길수·사진)는 치유농업 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최근 충북 괴산의 자연드림파크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푸르메소설팜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남원형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일환으로 연구단체 의원인 손종열, 오창숙, 이기열, 김정현, 이숙자, 이미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



"퇴진광장을 열자" ...尹정권 퇴진 시국대회

전국민총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승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집회는 서울 외에도 전북과 대전, 광주 등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 50% 이상이 '깡통주택'

민주 이춘석 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한 대책 마련해야"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주택 10세대 중 5세대 이상이 '깡통주택'이었다고 이춘석 국회의원이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총 130만 9,824세대가 가입했고, 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78.4%로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세대 중 3세대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 평균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 90.7%, 강원 88.6%, 경남 87.4%, 경북 86.7%, 부산 85.7%, 충남 85.2%, 전남 85.0%, 광주 81.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6만 1,954세대 중 70.9%인 43,905세대가 부

채비율 80% 이상을 차지해 전국에서 깡통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8월) 1만3,567세대에서 총 28조 9,969억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주기가 요구된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6.6배 증가한 5,979세대에서 1조 4,389억 원 규모(전년 대비 약 17.3배)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이미 지난 8월까지 6천이 넘는 세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사고 세대 수를 훌쩍 넘어섰다.

/이만호 기자

## 선택직불제 확대 시행 법적 근거 마련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직불제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량안보·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 농가 확대를 비롯해 농업인의 소득 보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 초저출생 해결·지방소멸 극복 '단초'

민주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출산·육아·양육 지원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출산·육아·양육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 의를 통과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 "초저출생 해결, 나아가 지방소멸 극복의 단초가 될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다"라고 소회를 전하면서, "제도 정착 과정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앞으로도 국가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해결을 위해 입법 정책적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침

## 국힘 조배숙 의원, 전북 현안 법률 개정 정책간담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전북자치도 주요 현안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발의한 개정안 중심으로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올해 1월 18일 출범한 상황으로, 도청 소재지인 전주는 생활 인구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대도시권에서 포함돼

/이만호 기자